

**2023 년 9 월 10 일 “(그리스도 예수) 반석 위에 교회를”(마 16:13-20)**

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초석은 하나님 사랑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세워 주신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견고히 갖는 것입니다.

**[1] 제자들의 고백**

베드로가 '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'라는 고백을 드립니다.

하나님의 아들(sonship) 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(출 4:22 '이스라엘은 나의 장자'). 베드로의 고백에서는 여전히 sonship 을 지닌 메시아(구주)로서 특별한 사명과 직분을 받으신 분임을 나타냅니다.

이 고백을 칭찬하셨으나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. 베드로 고백은 옳은 말이지만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. 이것을 위해 주님께선 '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'(v.18-29)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(v.21 이하) 말씀하십니다.

**[2] 교회의 본질(v.18-19)**

- (1) 교회는 '예수님이 그리스도'시라는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다.
- (2) 죽음의 문들(음부의 권세)가 이기지 못한다.
- (3)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주어진다.

첫째, 교회는 제자의 고백 위에 주인이신 주님께서 세우십니다. 따라서 교회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주님을 인정해 드리며,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온 사람들로써 주님께 합당한 우선적인 반응이 있을 때 교회 다워집니다.

둘째,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. 어둠의 권세의 주요목표는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인간의 초점을 인간적인 차원, 즉 선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차원으로 돌립니다.

그러면 우리는 빈번하게 이기는지 지는지도 모르는 현실 속에 빠지는데,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에 진 것인가요? 아직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. 성도는 어떤 시험, 고난, 역경,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, 이 본질이 지닌 영광스러운 능력(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)의 충만과 완성으로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.

셋째, 하나님 나라 열쇠가 주어졌습니다.

땅에서 '매면' -> '금지하면'  
땅에서 '풀면' -> '허락하면'

성도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 금지할 것을 금지하고, 허락할 것을 허락하면 하늘도 그것을 인정하여 준다는 뜻입니다. 예:

"서로 사랑하라"(요 13:33-34)는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사랑하지 못할 이유와 방해물이 참 많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중심성향, 자기 주장, 이기심 등은 금지시키고, 내면에 감추어진 사랑의 의지는 허락하여 고집어내어 실천할 때에, 내 맘에 평화는 물론 하늘이 인정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.

요 13:34 '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'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 맬 것은 매고 풀 것은 풀면 예수님의 제자(하늘의 권세를 입은)가 됩니다.

이 열쇠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하늘의 축복과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. 그러나 매 순간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. 하루에 1 번이라도 진심을 다한다면,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일하십니다.

오늘, '주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고백' 위에 세워 주신 교회의 본질과 나아가야 할 참 모습을 엿보았습니다.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, 하늘 열쇠를 받은 교회의 교회 됨을 바르게 깨우침으로 신앙의 영적 진보를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

### <나눔의 질문>

1. 본문 16 절의 베드로의 고백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이전이나 지금 주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.
2. 교회의 교회 됨에 관하여 다룬 위의 세 가지 사실에 비추어 교회관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. 나는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고 앞으로 무엇에 주력하고 싶습니까?